

## 朱子와 退溪의 窮理思想\*\*

載 璉 璋\*

• 目 次 •

提要

I. 序 論

II. 性理의 涵義

III. 窮理의 工夫

IV. 結 論

### 提 要

본문에서는 주자와 이퇴계선생의 窮理思想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자와 퇴계 이 두 大儒의 학설가운데에서 「理」란 형이상학적이고, 본체론적인 存有이며, 만물이 그 至善至好한 존재가 되는 초월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것은 物의 「當然之則」이요, 또한 物의 「所以然之故」이다. 만물의 當然之則은 비록 다르지만, 그 所以然之故는 도리어 오직 一理인 것이다. 우리들이 格物窮理한다는 것은 「表裏精組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그 극치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니, 바로 여러 가지 다른 특수성으로부터 태극의 一理로 歸本해야 하는 것이다. 이 태극이란 一理가 우리들의 심중에서 찬연히 彰著될때, 인심의 全體大用이 밝지 않는 바가 없으므로, 우리들은 곧 順理라고 應物할 수 있으며, 그 當然之則과 所以然之故를 다할 수 있으니, 이것 또

\* 대만사범대학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6호(1980) 게재논문  
(제4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한 바로 盡心盡性の 道德踐履인 것이다. 필자는 주자와 퇴계의 궁리사상을 추구하여 그 가운데서 實然을 轉化하여 당연으로 귀의시키고, 지식우주를 전화하여 하나의 도덕우주가 되는 정기를 가르켜 낸 것이며, 동시에 이것에 의하여 주자·퇴계학설의 현대적 의의를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 序 論

朱子(1130~1200)는 송대의 대유로서 理學을 집대성하여 일대의 학풍을 열었으니, 그가 후세의 학술사상에 미친 영향은 심원하다. 주자보다 삼백 여년 후인 16세기의 한국에 이퇴계 선생(1501~1570)이 있었으니, 그는 대대적으로 주자의 학설을 弘揚하여 엄연한 일대의 종사가 되었으며, 한국근대문화의 발전에 대한 그의 위대한 공헌은 족히 주자와 함께 전후로 휘황찬연하게 빛을 냈던 것이다. 주자와 퇴계, 이 두 中韓思想史상의 巨擘은 필생의 志業을 전적으로 오로지 유가의 成理成賢의 대학문에 경주하였던 것이다. 學·思를 並重하고 知·行을 兼修하여 유학은 그들의 체험과 강론 하에서 새로운 풍모를 전개하고 현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학설 가운데 유가의 도덕철학상에 있어서 「理」는 본체론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궁리」는 바로 수양론적인 主脈을 이루고 있다.

이 두 大儒의 논저를 통하여 우리들은 일생 동안 그들을 전격으로서 추구하여 가도록 이끌어 들인 이상경계는 바로 하나의 화려하고 장엄한 理의 세계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이 理세계의 현실적 투영 중에는 연어가 비약하고, 초목이 번성하며, 父子가 자효하고, 예의가 조명하니, 물물마다 모두 태극의 풍자가 있고 곳곳마다 天理가 유행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안거하고 여기에서 즐거워하며, 格物致知와 存養 察識에 부지런하게 踐履를 확실하게 하며 궁리진성하여, 인류의 심령을

제고시키고, 인간의 기질을 변화시키며, 도덕사업을 개창하여, 美善의 경계로 돌아가게 함을 확신할 수 있다. 주자와 퇴계의 이상은 비단 그들 본인 자신만을 이끌어 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와 후학까지도 이끌어 들였던 것이다. 사실 그들이 지향한 이 화려하고 장엄한 理의 세계는 보편적이며, 영원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어떠한 사람 혹은 어떠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理세계에 대한 회귀는 현실인간을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하며, 또 마땅히 영원하게 인류공동의 志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들은 주자와 퇴계학설의 현대적 의의를 긍정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의 두 대유의 논저를 읽고서 현인을 경모하는 심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또 비록 철학상의 省悟는 부족하지만 삼가 그들의 공리사상에 대하여 작은 소견으로 얻은 바를 논술하고자 한다.

## II. 性理의 涵義

唐君毅 선생은 말하기를…

「중국철학사 중에서 이른바 理에는 주요한 여섯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으니 ; 첫째는 文理의인 理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선진사상가들이 중시했던 理요, 둘째는 名理의인 理로서 이것은 또 위진현학 중에서 중시했던 玄理를 가리키며, 셋째는 窮理의인 理로서 이것은 수당불학가들이 중시했던 理를 가리키는 것이다. 넷째는 性理의인 理로서 이는 宋明理學家들이 중시했던 理이고, 다섯째는 事理의인 理로서 이것은 王船山으로부터 청대 일반유자들이 중시했던 理였으며, 여섯째는 物理의인 理로서 이는 현대 중국인들이 서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후에 특별히 중시했던 理인 것이다. 이 여섯 가지 理는 똑같이 선진경적 중에서 말하는 理의 함의 중에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다. 만일 이들을 현대적인 언어로써 설명한다면 문리적인 理는 곧 인륜·인문적인 理로서 인간과 인간이 상호활동이나 또는 상호 그 정신을 표현하여 합성된 사회 혹은 객관정신 중의 理라 할 것이요, 명리·현리적인 理는 사상 명언으로부터 현현되

는 理라 할 것이다. 성리적인 理는 인생행위의 내재적인 當然之理로서 형이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天에 통하는 理라 할 것이요, 사리적인 理는 역사사건의 理라 할 것이며, 물리적인 理는 객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는 존재사물의 理라 할 것이다.」(중국철학원론·上冊 p.4)

라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유가에서 중시하는 이는 모두 性理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주자와 퇴계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주자의 입장에 의하면 이성리는 곧 「所當然之則」과 「所以然之故」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말하기를…

「천하의 만물은 반드시 그 所以然之故와 그 所當然之則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理라고 한다.」(大學或問·第一章)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해석하기를…

「所當然之則이란 君이 되어서는 仁하고, 臣이 되어서는 敬하는 것과 같으며, 所以然之故란 君王은 왜 仁해야 하고, 臣은 왜 敬을 해야 하는 것 등과 같으니, 이는 모두 天理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上同)

라고 하였다.

퇴계가 12세에 논어를 읽고, 「理」자에 대하여 開悟한 바가 있었으니, 그는 「모든 사물의 옳은 것이 理이다」<sup>1)</sup>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뒷날 주자의 설법을 거듭 논하기를…

1) 退溪先生年譜: 「(武宗正德)七年壬申, 受論語于叔父松齋公堦.

注에: 「一日將理字問松齋曰: 『凡事之是是者理乎?』 松齋喜曰: 『汝已解文義矣.』(退溪全書答三冊, 五七六頁)라 하였고, 또 記善錄에도 類似한 記錄이 있으니: 「凡事物之是底是理乎?」(全書第五冊, 二六四頁)라 하였다.

「理」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나, 사실은 容易한 것이다. 만일 先儒들이 배를 만들어 물 위로 다니게 하고, 수레를 만들어 땅 위로 다니게 했던 주장<sup>2)</sup>에서 자세히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 나머지는 모두 미루어 알 수가 있다. 대저 배가 마땅히 물 위로 다니고, 수레가 마땅히 땅 위로 다니는 그것은 이 理인 것이다. 그러나 배가 땅 위로 다니고, 수레가 물 위로 다니는 것은 그 理가 아니다. 君으로선 당연히 仁하고, 臣으로선 당연히 敬하며, 父로선 당연히 慈하고, 子로선 당연히 孝하는 것은 이 理인 것이다. 그러나 君으로서 不仁하고, 臣으로서 不敬하고, 父로서 不慈하고, 子로서 不孝하다면, 그것은 理가 아니다. 무릇 천하에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은 理이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理가 아니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理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退溪全書第五冊·188p)

라고 하였다.

퇴계의 「당연히 행해야 할 것」(所當行者)은 바로 朱子の 「所當然之則」이며, 그것은 사물의 「옳은 것」(是者), 즉 「至當한 법칙」이요, 또 바로 사물의 「當行할 법칙」인 것이다. 그러면 이른바 「是」와 「至當」은 또 무엇에 의거해서 결정할 것인가? 주자의 답안은 바로 「所以然之故」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한 사물마다 모두 다 이와 같이 되는 「所以」의 근거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또 바로 그 한 사물(그 자기를 실현하는)이 定然之理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君王으로서 그 君이 되는 定然之理를 형성하는 所以에 의해서 말하면 仁은 바로 지당하면서도 所當行해야 될 법칙 이요, 父로서 그 父가 되는 定然之理를 形意하는 所以에 의해서 말하면 慈는 지당하고도 當行해야 될 법칙인 것이다. 만물의 所以然之故를 주자는 「天理」라고 말하였는데, 이 천리는 바로 易傳에서 이른바 「太極」인 것이다.

주자는 말하기를…

2) 朱子語類卷四에: 「問: 『理是人物得同於天者, 如物之無情者亦有理否?』」曰: 「固是有理, 如舟有理, 如舟只可行之於水, 車只可行之於陸。」라 하였고, 또 卷一五: 「且如作舟以行水, 作事以行陸. 今試以衆人之力共推一舟于陸, 必不能行, 方見得舟果不能以行陸也. 此之謂實體。」라 하였다.

「上天의 載는 無聲無臭하나, 실제로는 조화의 樞紐요, 品彙의 근거이다. 그러므로…『無極而太極』이라고 하니, 太極 외에 다시 無極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太極圖說解)

라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태극은 다만 하나의 極好至善한 도리이다. 周子가 말하는 태극은 天地人物의 萬善至善한 表德인 것이다.」(語類九十四卷).

라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태극은 다만 천지만물의 理일 뿐이다. 천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천지 중에 태극이 있고, 만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만물 중에 각기 태극이 있는 것이다.」(語類一卷)

라고 하였다.

이상의 인용한 문장에서 우리들은 주자가 말한 바의 천리(太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一) 天理란 만물이 그 至善至善한 존재(그 자기를 실현하는)의 초월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조화의 樞紐·品彙의 根柢」나, 「極好至善의 도리」나, 「天地人物의 萬善至善한 表德」 등은 모두 이 천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二) 天理란 형이상적이며, 본체론적인 存有(ontological being)인 것이다. 그 理의 지극한 데 의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태극이라 이르고, 그 「無聲無臭」한 비형이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또한 무극이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무극」과 「태극」은 명칭은 다르면서도 실체는 같다.

(三) 天理는 물질로 말미암아 현현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물질을 떠

나지도 않으며 도리어 또 물질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천리가 물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만물 중에는 각기 태극이 있다」고 말하며,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천지 중에는 태극이 있다」고 말한다. 주자는 또 따로 「統體는 하나의 태극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물질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는 설법(語類九十四卷참고)이 있는데 역시 이러한 뜻이다.

(四) 理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하는 物에 있어서는 다른 분별이 있는 것(理一而分殊)이다. 物이란 특수하면서도 구체적인 존재로서 天理가 物에서 현현될 때, 物의 차이로 인하여 그 특수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이른바 「하나의 物은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통체는 하나의 태극이니, 바로 천리란 만물의 존재적 초월근거가 되는 것에 의해서 말한 것이므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理일 뿐이다. 그러한 특수한 양상은 다만 一理의 틀(機)에 의하여 현현할 뿐이다. 그러므로 천리는 군신부자의 그 곳에서 곧 仁敬慈孝로서 현현되며, 또 舟車의 그 곳에서 곧 마땅히 물 위로 다니고, 또 마땅히 물 위로 다니는 것으로서 현현된다. 仁敬慈孝와 마땅히 水陵에서 다니는 것은 分殊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物에 상응하여 그것이 至當하고 當行한 법칙이 의거한 바의 「所以然之故」는 다만 하나일 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천리란 「조화의 樞紐요, 品彙의 根底」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주창생의 창조실체(Creative reality)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은 주자와 퇴계의 이기이원론 그 곳에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주자는 말하기를…

「천지간에는 理가 있고, 氣가 있다. 理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의 道요, 생물의 本이다. 氣라고 하는 것은 형이하의 器요, 생물의 具이다. 그러므로 인물의 生에는 반드시 이 理를 稟愛한 연후에 본성이 있게 되고, 반드시 이 氣를 품애한 연후에 그 형체가 있게 된다.」(答黃道天書·文集卷五十八)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氣는 이 理에 의지하여 행한다고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氣가 모이면 理도 역시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무릇 氣는 응결조화할 수 있으나, 理는 반대로 無情意하고 無計度하며, 無造作한다. 다만 이 氣의 凝聚하는 곳에 理도 곧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천지간의 인물 초목조수가 그 출생에는 반드시 중자가 있는 것이며, 중자가 없이는 막연히 하나의 사물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氣의 표현이요, 만일 理라고 하면, 다만 하나의 淨潔空闊한 세계로서 無形迹이므로 도리어 조화하지 못한다. 氣는 생물을 醞釀凝聚로서 物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氣가 있으면, 理도 곧 그 가운데 있다.」(語類卷一)

라고 하였다.

만물의 생성에는 理가 그 준칙이 되고, 氣가 그 資具가 된다. 理의 세계는 형이상의 無形迹의인 淨潔空闊의 세계이다. 理란 無情意하고 無計度하며, 無造作한다. 氣의 醞釀凝聚로서 비로소 조작할 수 있고, 物을 생성할 수 있으나, 그러나 氣는 반드시 理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며, 그의 응취조작은 전부 理를 준거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氣가 凝聚造作하여 생성된 物로 인하여 理는 자연히 그 가운데 내재하여 그 定然之性을 이루고 있다.

퇴계는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계승하여 논술하고, 동시에 또 주렴계의 태극도설에 근거하여, 理의 發用방면에 獨到的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易에는 태극이 있어서 그것이 兩儀를 낳는다』라고 하였다. 만일 理氣가 본래 一物이라고 한다면, 태극은 곧 兩儀인데, 어찌 兩儀를 生할 수 있겠는가? 주자는 말하기를…『태극이 動하면 양을 生하고, 靜하면 음을 生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무극의 진실 자체와, 음양오행의 정화는 묘합하여 凝聚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眞이라 하고, 精이라 하는 것은 그 二物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묘합하여 凝聚한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一物이라고 한다면, 어찌 묘합하고 凝聚할 수 있겠는가?」(理氣辯·全書第五冊·一五一頁)

라고 하였다.

易傳의 태극이 兩儀를 生하고, 주립계의 태극이 動하면 양을 生하고, 靜하면 음을 生한다고 한 것은 퇴계가 「理氣는 절대로 二物이다」<sup>3)</sup>라고 긍정하는 이론적 근거인 것이다. 역전과 염계는 다 같이 말하기를…태극은 능히 「生」할 수 있으므로 태극은 또다시 「시키는 者」(使之者)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므로 퇴계는 말하기를…

「태극이 動靜이 있는 것은 태극 자체가 스스로 動靜한 것이며, 천명의 유행은 천명 자체가 스스로 유행한 것이니, 그 어찌 다시 使之者가 있겠는가?」(答李遠李天機·全書第一冊·三五四頁)

라고 하였다.

태극이 「스스로 動靜」하여 兩儀를 낳는다는 것은 바로 천리가 발하고 유행한 것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퇴계는 주자가 「無情意하고, 無計度하고, 無造作」하다고 생각한 理에 대하여 다시 한걸음 나아가 해석하기를 …

「無情意造作者는 이 理本然의 실체이며, 그 존재하는 데 따라서 발현되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 理가 곧 至極神妙의 작용인 것이다。」(答奇明彦別紙·全書第一冊·四六五頁)

라고 하였다.

理에 體用이 있다고 한 바에는 氣와 理의 관계는 또 어떠한 것인가? 퇴계는 말하기를…

「理가 動하면 氣는 거기에 따라서 生하며, 氣가 動하면 理는 거기에 다

3) 朱子答劉叔文語에 根據하여 退溪는 理氣辯에서 이 말을 引用하였다.

라서 현현한다. 염계가 말한...『태극이 動하여 양이 生한다』고 한 것은 理가 動하면 氣가 生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易經에서 말한...『復掛에서 그 天地之心을 본다』는 말은 氣가 動하면 理가 현현하기 때문에 가히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自注: 무릇 心이란 모두 理氣를 발하여 본 것임). 그러므로 理氣二者는 모두 조화에 속한 것이며, 뜻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答鄭子中別紙·全書第二冊·一八頁)

라고 하였다.

理가 動하면 氣가 生하고, 氣가 動하면 理가 현현한다는 것은 바로 퇴계의 「二體二用」과 「理氣互發」의 獨到的인 견해를 형성하고 있다.<sup>4)</sup>

엄격하게 말한다면 염계와 주자의 사상체계는 결코 相同한 것은 아니다. 태극이란 염계의 體會에 의거하면, 우주의 생성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실체로서, 그것은 「바로 存有하고, 동시에 바로 활동한다」는 것이며, 주자의 體會에 의거하면, 태극이란 다만 하나의 본체론적인 存有에 불과하며, 그것은 「다만 存有할 뿐이며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sup> 주자는 비록 또 「理에는 動靜이 있으므로 氣도 動靜이 있다」(答鄭子上·朱子大全卷58)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말한 「理에 動靜이 있다」고 한 것은 마땅히 「理가 있는 그 곳에 動之理가 있으며, 또 靜之理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니 이는 氣가 動靜할 수 있는 준칙이 되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아래 열거한 삼단의 인용문을 참고하여 본다면

「천지간에는 오직 動靜兩端만이 循環不已하고, 그 밖의 일이 없으니, 이것을 易이라고 한다. 또 그것이 動하고 靜하면 반드시 動靜하는 所以의 理가 있으므로 이것을 태극이라고 한다.」(答楊子直·大全卷四十五)

라고 하였으며, 또...

「動靜은 태극이 아니며, 動靜하는 所以가 곧 태극인 것이다. 그러므로

4) 詳細한 內容은 裒宗鎬先生著·韓國儒學史·號四章·九四頁참고.

5) 牟宗三先生著心體與性體·第一部·綜論참고.

動靜 밖에 따로 태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가할 수 있으나, 動靜이 따로 太極之道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太極圖朱子小註)

라고 하였으며, 또…

「이 動之理가 있으므로 곧 動하면 양을 生하고, 이 靜之理가 있으므로 곧 靜하면 음을 生하는 것이다. 이미 動한 즉 理는 또 動 가운데 있으며, 이미 靜한 즉 理는 또 靜 가운데 있다.」(上同)

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이것에 의해서 주자는 動靜은 반드시 氣 쪽의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動靜하는 所以가 理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자는 天理란 당연히 또 發用하고 유행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단지 氣가 動하여 理가 현현할 뿐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주자에 있어서는 또 「理」는 氣를 生한다.<sup>6)</sup>고 말할 수 있으나, 이 「生」이란 오직 「所以然은 바꾸려고 해도 바꿀수 없다」(所以然不可易)는 일종의 규범의의이며, 蒼生의 의의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자의 理는 본체론적 存有이며, 우주 생성변화의 창조실체는 아니라고 말한다. 퇴계가 「理가 動하면, 氣는 따라서 生한다」고 말하였을 때는, 이미 주자를 초월하여 유학 가운데 理를 창조실체로 삼는 전통과 契接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이는 퇴계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이다.

### Ⅲ. 窮理의 공부

주자와 퇴계의 理氣二元論에 의거하면, 천지간 일체의 인물, 초목, 조

6) 語類卷一: 「有是理後生是氣」라 하였다.

7) 宋儒 濂溪·橫渠 및 明道는 모두 이 系統에 屬한다. 心體與性體·第一部·綜論 참고.

수의 생성은 모두 氣가 理에 의해서 凝聚造作한 결과라는 것이다. 一物의 생성에 있어서 氣는 형체를 부여하고 理는 그 본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理에 의해서 말한다면, 「천하에는 性(理)이외의 物은 없다, 「枯-槁의 物도 역시 性이 있다, 「物의 無情한 것도 또한 理가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 性과 理는 인물이 동일한 근원—즉 모든 근원은 天理로부터 온 것이다<sup>8)</sup>—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氣에 의해서 말한다면, 「二氣五行이 交感萬變하기 때문」에 「인물의 생성은 精粗의 다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자는 말하기를…

「하나의 氣로부터 말한다면, 인물은 모두 氣를 받아서 생성한 것이며, 精粗로부터 말한다면, 인간은 그 氣의 正하고 通한 것을 稟受하고 얻은 것이요, 物은 그 氣의 偏하고 塞한 것을 얻은 것이다. 오직 인간은 그 氣의 正을 얻었기 때문에 理가 통하여 塞한 바가 없으며, 物은 그 氣의 偏을 얻었기 때문에 理가 塞하여 아는 바가 없게된 것이다(語類卷四).

라고 하였다.

氣가 得한 偏·正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人·物의 구별이 있게 된다. 인간은 「도리를 알고 지식을 갖추게 되므로, 「理가 통하여 막히는 바가 없게 된다.」 物은 비록 「그 간혹 아는 것이 있다」고 해도 「다만 한 길로 통하는 것에 불과하다.」<sup>9)</sup>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논하여 「理가 塞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物 쪽에서는 窮理盡性の 문제는 별로 관계가 없으나, 인간 쪽에서는 實然的 존재는 도리어 稟賦上 昏明清濁

8) 語類卷四에 : 「問 : 『枯槁之物亦有性·是如何?』 曰 : 『是他合下有此理·故云天下無性之物. 人行街·云 : 階磚便有磚之理. 因坐·云 : 竹椅便有竹椅之理·枯槁之物·謂之無生意則可, 謂如朽木無所用, 止可付之爨竈, 是無生意矣, 然燒甚摩木則是摩氣, 亦各不同, 這是理元如此.』」라 하였다.

9) 語類卷四에 : 「且如人……以其受天地正氣, 所以識道理, 有知識. 物受天地偏氣……物之間有知者, 不過只通得一露. 如鳥之知孝. 獺之知祭, 犬但能守禦, 牛但能耕而已. 人則無不知無不能, 人所以與物異者, 所爭者此耳.」라 하였다.

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上知生知之 자질은 氣가 청명순수하고 一毫混濁도 없다.」<sup>10)</sup>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논하여 모두 다 자질의 偏蔽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리의 공부를 더 해야만 비로고 진정으로 「理가 통하여 塞하는 바가 없고, 그 定然之性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리는 바로 인간이 그 인간이 되는 관건을 형성하고 있는 所以인 것이다. 주자와 퇴계가 인생수양 방면에 있어서의 千語萬語는 실제로 窮理盡性의 공부에 두고 있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오직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순진한 생명으로 표현(赤骨)된 天理에 서서 광명이 照耀하고 더욱 蔽障이 없다」는 聖者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1)</sup>

주자는 말하기를…

「대저 聖人之學이란 마음에 근본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이치에 순응하여 사물에 대응하는 것이니,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다. 그 도가 평이하고 통행하니, 그 거처함이 넓고 편하며, 그 이치가 實하니, 행동은 자연스럽다.」(觀心說·朱子文集卷六十七)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사는 모두 공리한 후에 있는 것이니, 經이 不正하고 理가 不明하면, 어떻게 特守한다 해도 오직 空일 뿐이다.」(語類卷五)

라고 하였다. 퇴계도 말하기를…

「學이란 공리를 중시하지만 理가 분명함이 없으면, 글을 읽거나, 혹은

10) 語類卷四에 : 「然就人之所稟而言, 又有昏明清濁之異. 故上生知之資, 是氣清明純粹而無一毫昏濁, 所以生知安行, 不待學而能, 如堯舜是也, 其次, 則亞於生知, 必學而後知, 必行而後至又其次者, 資稟既偏, 又有所蔽, 須是痛加工夫, 人一次百, 人十已千, 然後方能及亞於生知者, 及進而不已, 則成功一也.」라 하였다.

11) 語類卷百 一九頁참고.

일을 당할 때, 가는 곳마다 막히지 않는 바가 없다.(禹性行錄·全書第五冊·二四四頁)

라고 하였다.

공리가 일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공부를 간수할 것인가? 우리들은 물론 「聖人之學은 본심으로써 공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자와 퇴계의 體會에 의하면 心이란 우리 생명의 主宰<sup>12)</sup>로서, 精爽한 氣와 理의 배합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므로, 자연히 虛靈知覺의 妙用을 지니고 있게 된다.<sup>13)</sup> 다만 이 心을 放失하지 않고 충분히 그 心의 知用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능히 盡性하고 萬理를 具有할 수 있으며,<sup>14)</sup> 동시에 理에 順하고 物에 應하여 도덕감정의 發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횡거의 「心統性情」의 설법을 朱子는 「顯樸不破」적인 것이라고 여겼으며, 퇴계는 다시 한번 肯定을 가했던 것이다.<sup>15)</sup>

사실 인심에 放失하는 바가 있다면 그 知用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정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氣稟의 편차와 물욕의 혼란하는 바」(朱子語類卷一四)로 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곧 「理發이 未遂하고 氣에 가리어 감추어진 연후에는 흘러서 不善이 되었다」. 「氣發이 不中하고 그 理가 멀하게 되면 放失하여 버리니 악이 되었다」(退溪心統

12) 觀心說에 : 「夫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一而不二者也, 爲主而爲客者也, 命物而不命於物者也。」라 하였고, 語類卷五에 : 「心, 主宰之謂也。」라 하였다.

13) 朱子는 말하기를 : 「理與氣合, 便能知覺……所覺者心之理也, 能覺者氣之靈也. 心者氣之精爽. 虛靈自是心之本體。」(語類卷五)라 하였고, 退溪는 말하기를 : 「理氣合而爲心, 自然有虛靈知覺之妙。」(答奇明彥, 全書第五冊, 二一二頁)라고 하였다.

14) 朱子는 말하기를 : 「心句萬理, 萬理具於一心. 不能存得心, 不能窮得理, 不能窮得理, 不能窮得理, 不能盡得心。」(語類卷九)이라 하였고, 退溪는 말하기를 : 「理無形影, 而盛貯該載於心者, 性也。」(答本宏仲, 全書第五冊, 三一二頁)라고 하였다.

15) 語類卷五에 : 「伊川『性卽理也』, 橫渠『心統性情』, 二句顯樸不破。」라 하였다. 退溪의 見解는 그의 聖學十圖第六心統性情圖(全書號一冊, 二〇四頁)를 참고.

性情圖說)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이천의 명언… 「함양은 반드시 敬의 공부를 해야 하고, 進學은 致知에 있다.(二程遺書卷十八)는 말은 바로 주자와 퇴계의 持身の 法寶를 삼는 데 이르렀다.

주자는 말하기를…

「공자가 말한 克己復禮, 중용에서 말한 致中和·尊德性·道問學, 대학에서 말한 明明德, 서경에서 말한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등, 성현의 千言萬語는 오직 인간에서 천리를 밝히고 인욕을 버리라고 가르친 것이다. 천리가 밝아지면 자연히 강학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인성은 본래 밝은 것으로 寶珠가 溷水中에 빠져서 밝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단 溷水를 벗어나 제거하면 寶珠는 여전히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 자기가 만일 인욕에 폐한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밝은 곳이다. 다만 이 입장에서 탄탄히 힘을 써서 主定하고, 한편 格物하는 데 있어서, 오늘 一物을 格하고 내일 一物을 格하면, 바로 유격병이 포위공격하여 수비를 빼앗아 가버림과 같으니, 인욕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정이천 선생이 「敬」字를 주장한 것은 단지 내 스스로 하나의 분명한 物事가 여기에 있으니, 이 하나의 敬字를 가지고 外在影響을 抵禦하라고 말한 것이다. 항상 하나의 敬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면 인욕은 자연히 생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孔夫子는 말하기를…「仁이란 자기로 말미암아 표현된 것이지, 타인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것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語類卷一二)

라고 하였고 또…

「敬은 본심을 보유하는 공부인 것이다. 心이 존재한 후에 致知할 수 있고, 치지는 격물·궁리로써 盡性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심을 제고하여 도심이 되는 不二法門이다」.<sup>16)</sup>

16) 觀心說에 : 「存心云者, 則敬以直內, 養以方外, 若前所譯精一操存道也。」라 하였고, 語類卷七 : 持敬是窮理之本, 窮得理明又是養心之助。」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주자는 大學補傳 속에서 致知格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니,

「이른바 치지가 격물에 있다고 한 것은 자아의 知를 致하고자 하면 物에 卽하여 그 理를 궁구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이다. 대개 인심의 靈은 知를 지니지 않는 바가 없고, 천하의 物은 理를 지니지 않는 바가 없다. 다만 理에 窮하지 못한 바가 있으므로 그 知를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학을 처음으로 가르칠 때는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일체의 物에 대하여 이미 아는 이치에 의해서 더욱 그것을 궁구하여 그 극치점에 이르는 추구를 추구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추구하는 바가 오래됨에 이르러 일단 豁然貫通하면, 衆物이 表裏와 精粗에 이르지 않는 바가 없게 되고, 吾心の 全體大用이 밝지 않는 바가 없게 된다. 이것을 格之物이라 이르고, 또 知之至라고 이르는 것이다.」(大學章句)

라고 하였다.

주자는 大學經文의 주석속에서 말하기를...

「致란 惟極이요, 知란 識과 같은 것이다. 나의 지식을 惟極하는 것은 그 아는 바를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格은 至요, 物은 事와 같은 것이다. 사물의 理를 窮至하여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음이 없으자 한 것이다.」(大學章句)

라고 하였다.

주자의 치지격물의 함의를 惟究하여 보면, 아래에 열거한 네 가지 점은 특별히 주의할 가치가 있다.

(一) 心知와 物理는 能·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心은 能知이며 物은 所知이다. 心의 靈明으로서 사물의 理를 알 수 있으니, 이것은 지식론상에서 말하는 인지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지활동이 파악하고 있는 理는 사물의 實然之理로서, 이것에 의하여 경험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자의 격물치지의 목적은 분명히 여기에 있지 않다.

주자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도덕이요, 지식은 아니었다. 그는 「物에 卽하여 그 理를 궁구함에」따른 공부는 「吾心の全體大用을 분명하지 않음이 없게」<sup>17)</sup>하고자 하여, 人心을 衆理總會의 태극이 되게 하여, 인간의 행위를 주재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반드시 順理하고, 應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二) 이른바 궁리란 「곧 무릇 천하의 物」에 대하여 「그 이미 아는 이치에 의해서 더욱 그것을 궁구하여 그 극치점에 이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物理의 인지에 대하여 「表裏精粗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도록 기약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들의 궁리에는 비단 양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또 질적인 문제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방면에서 말한다면, 이른바 「우리 생명에는 한정이 있어도, 知에는 한정이 없다」고 한 것은 한 개인으로서 영원히 진정으로 모든 사물의 理를 窮盡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한 궁리의 「窮」자는 곧 양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으나(下文에 상세히 논함), 그 실체는 오히려 질적인 방면에서 그 「表裏精粗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을 추구하는 곳으로 귀의하게 된다.

그가 말한 「表」와 「粗」는 물론 일반 見聞知로 이미 아는 바의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實然之理요, 경험지식인 것이다. 그가 말한 「裏」와 「精」은 德性知로 아는 바의 當然之則과 所以然之故이며, 그것은 또 천리요, 태극인 것이다. 궁리는 반드시 그 「極」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豁然貫通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극은 衆理의 본원이요, 궁리는 태극의 殊相이기 때문이다. 活潑貫通은 바로 「分殊」로부터 「理一」로 歸本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 대하여 퇴계는 대단히 훌륭한 體會가 있었으니, 그는 말하기를...

「고금 사람들이 학문도술에 부족함이 있는 所以는 오직 理자를 알기 어려움기 때문이다. 이른바 理字를 알기 어려움다고 한 것은 略知하기

17) 語類卷一六에 : 「格物致知, 彼我相對而言, 格物所以致知。」라 하였다.

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알고 오묘하게 이해하여 완전무결한 곳에 이른다든 것이 어려웁다는 것이다. 만일 衆理를 궁구하여 십분 透微한 경지에 이르면 이 사물을 통찰할 수 있고, 至虛하면서 至實하고, 至無하면서 至有하고, 動하면서 無動하고, 靜하면서 無靜하고, 潔潔淨淨하여, 조금도 더할 수 없고, 조금도 덜할 수 없으므로 능히 음양오행과 만물만사의 근본이 되고서도 음양오행과 만물만사 속에 얽매이지 않으니. 어찌 雜氣가 있어서 一體를 一物로 간주한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答奇明彦, 全書第五冊, 二二四頁)

라고 하였다.

(三) 주자에 있어서는 「物에 卽하여 그 理를 궁구한다」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全體大用이 밝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경계에 이르고, 인간의 「順理應物」하는 바가 그 內聖外王의 도를 형성하는 경지에 이른다든 그것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物에 卽하여 理를 궁구함으로써 그 극치점에 이른다든 것도 또 곧 「心の 지닌 바의 理를 다한다」는 것이다.<sup>18)</sup>

주자는 말하기를,

「하늘은 광대하고 무한하며, 性은 그 전체를 稟受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심은 그 자체가 확연하고 무한량한 것이다. 오직 그것이 刑器의 사육에 얽매이고, 견문의 微小에 걸려서, 이로 말미암아 가리는 바가 있고 부진한 바가 있게 된다. 인간이 능히 사물에 즉하여 그 理를 궁구함으로써 一日에 관통하여 끼치는 바가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 본심의 廓然之體를 보전하여 오성이 性이 되고 天이 天이 되는 까닭이므로, 모두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일관하는 것이다.」(盡心說·朱子大全續集卷六十七)

라고 하였다.

천리는 物에도 있고 心에는 있으므로 物之天理한 곧 心之天理인 것이

18) 觀心說에 : 「若盡心云者, 則格物窮理, 廓然貫通, 而有以極夫心之所具之理也.」라 하였고, 語類卷百一五에 : 「此心虛明, 萬理具足. 外面理會得者, 卽裏面本來有底. 只要自大本而惟之達道耳.」라 하였다.

다. 心之天理란 반드시 格物窮理의 공부에 의해서 찬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물로써 느낄 때는 바로 機緣으로 인하여 順理하고 情에 맞춰서 표현하므로 品節에 틀림이 없다. 퇴계는 이 방면에서 또 아주 훌륭한 體會가 있었으니, 그는 말하기를…

「人心은 體用을 갖추고 있어서 寂感을 포괄하고 動靜을貫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物에 未感하였을 때는 寂然不動하지만 萬理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心의 전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 사물이 未感하니 遂通하고 品節에 틀린 것이 없으니 心의 大用이 행하여지지 않는 바가 없다.」(答黃仲舉·全書第五冊·二〇五頁)

라고 하였다.

(四) 위에서 말하기를…주자가 말한 공리는 양적인 면에서 多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聖은 덕을 주로 하게 되므로 본래부터 多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인은 아직 다능하지 않은 자가 없다」(語類卷三十六)라는 설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래에 열거한 양단의 인용문은 더욱 주의할 가치가 있다. 즉…

「성현은 無所不通하고, 無所不能하니 어떤 일인들 깨닫지 못하겠는가? 예를 들면 중용에서 천하국가에 오경이 있으니, 바로 많은 사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같고, 또 무왕이 箕子를 방문하고 洪範을 述하며 자신의 視·聽·言·貌·思 등은 天人之際에서 다하며, 인사방면에서는 八政이 있고, 天時에는 五紀가 있으니, 卜筮에서 그것을 고찰하고, 庶徵에서 그것을 證驗함에 無所不備한 것과 같으며, 또 주례와 같은 경서에는 주공의 많은 경국제도를 실었으니, 거기에 있는 국가는 마땅히 自家로 간주해야 한다는 바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고대 성현들은 많은 규모의 大體만은 또 알아야 했었다. 이러한 도리는 無所不句하고, 無所不在한 것이다. 그리고 禮·藥·射·御·書·數 등과 같이 많은 周族升降과 文章品節의 繁雜에 어지 妙道精義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 이해는 해야 하는 것이니, 이해가 익숙하여질 때, 이 도리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율력·형법·천문·지리·軍族·관직같은 것도

모두 이해를 해야 하니, 비록 그 精微를 아직 통찰하지는 못하였다 하여도, 규모의 대개는 알아야 도리가 비로소 흡족히 通透하여지는 것이다.」(語類卷白十七)

라고 하였고, 또…

「이 일은 반드시 四方上下와 小大本末이 여기에서 일체히 貫穿되고, 일체히 이해되어야 한다. 그 마음의 操存하고 행동으로 踐履하는 곳은 본래 긴요하여 중단될 수 없는 것이요…도리의 大原에 이르러서도 물론 이해를 해야 하고, 纖悉하고 委曲한 곳도 또 이해를 해야 하며, 制度文爲한 곳도 또 이해를 해야 하니, 精粗大小도 당연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四邊이 일체히 合起되니, 공부가 조금도 틈이 없게 된다. 동변에서 볼 수 없으면 서변에서는 꼭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쪽 아래에서 볼 수 없으면 저 쪽 아래에서는 꼭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면, 기타 다른 곳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만일 한 지점에 좌정하였으면, 그의 支體는 또 반드시 널리 빌려 진을 치고, 대군을 무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군이 여기에 앉아서 그 곳을 진압하니, 유격부대는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적의 激截을 노린다. 이와 같은 공부라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語類卷百二十一)

라고 하였다.

여기에 근거하여 본다면, 주자의 격물궁리의 학문은 그 규모의 크기가 정말로 「四方上下·小大本末」이 겸비하지 않음이 없음은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 점은 지식세계의 모든 實然之理는 이 방대한 계통 중에 涵攝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학술계 각부 문벌의 여러 가지 지식은 모두 다 주자의 이 理세계의 大網絡 속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기를 주자의 목적은 지식을 성취하는 데 있지도 않았으며, 그는 또 지식문제에서 진일보한 논술을 하여 오늘날 말하는 지식론적인 체계를 건립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오직 인류의 위대한 心靈중에는 마땅히 「理通而無所塞」해야 하고, 物之當知者는 마땅히 無所不知해야 하며, 事之當能者는 마

땅히 無所不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또 사람들에게 告誡하여 말하기를...「한갓 범연하게 萬物之理를 살피고자 하면 나는 대군의 유격부대가 너무 멀리 나가 돌아오는 바가 없는 것 같을까 걱정스럽다」(語類卷一八)고 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들이 앞에서 지적한 것이요, 그의 격물궁리는 천리를 궁극적인 귀의로 삼아서 「吾心の全體大用이 밝지 않은 바가 없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으면 일체의 지식과 일체의 사물은 모두 다 지당함에 귀의하여 그 마땅히 지녀야 할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實然을 轉化하여 당연에 귀의 시킨 것이며, 지식우주를 전화하여 도덕우주의 대지혜가 되게 한 것이요, 또한 주자·퇴계가 그의 정력을 기울여 유학을 弘揚하는 精義의 소재이기도 한 것이다.

#### IV. 結 論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지식이 폭발하고 인문정신이 허탈하여진 시대이다. 인간은 물질을 쫓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얻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아의 迷失도 더욱 멀어지며, 분초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物役に 지쳐서 그 돌아올 바를 모르게 된다. 인생의 茫昧나 문명의 위기는 현대 현자의 心靈을 困苦하게 하고 있다. 우리들이 자신에 절실하도록 곤경에서 사색하고 있을 때, 주자와 퇴계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묘사한 그 연어가 비약하고, 초목이 번성하며, 天理가 유행한다는 세계는 결국 이렇게 강렬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각종의 지식을 추구하고 각종의 實然之理를 궁구함에 열중하는 외에 마땅히 되돌아서 자기의 心靈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 「當然不容己, 所以然不可易」의 천리를 體認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無所不知하고 無所不能한 성인은 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 각종행업이나 각종지식은 一致而百慮, 殊途而同歸」할 수 있어서, 다같이

이 人類盛德大業의 창조상에 귀의하여 각기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美善한 인간을 건립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것이 당대유학의 신과제요, 또한 우리들이 朱子와 퇴계 두 대현을 懷念할 때 가장 절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여긴다.

퇴계선생은 말하기를…

「역사의 鈔錄을 보니, 옛날의 공행하던 군자는 이 일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본원의 心地上에서 함양성찰과 直內方外의 공부를 세밀하게 더 하지 않고, 다만 마음만 惓惓하여 날마다 古書더미 속에서 이미 오래된 거친 자취를 따라서 찾고 수집망라하고 抄錄하여 綴하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았으니, 틀림없이 蓄德과 尊性의 功效가 없으며, 오히려 粗心浮氣의 성장만 더할 뿐인 것이다.」(答鄭子中·全書第五冊·二七九頁)

라고 하였다.

필자는 읽기를 再三하였으나, 스스로 惕勵한 나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본문의 지음이 요행히 대현의 책망을 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양 승 무 譯)